

미션+ MISSION

CBS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선교 소식지 Vol.10 2014. 9.



CBS가 창사 6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3부터 70일 동안 목동 CBS 사옥 7층 특별전시실에서 '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가졌다.

CBS Media Group
60th Anniver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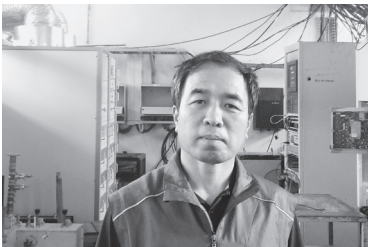
“창사 60주년, CBS의 새 얼굴입니다”

CBS는 지난1월 CBS 창사 60주년 비전선포식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기업정신을 담은 회사 로고 이미지(CI)를 공개함과 동시에 창사 60주년 비전 선포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창사 60주년 슬로건도 함께 발표했다.

새롭게 공개된 CBS의 CI는 CBS 글자 모양에 각각 ‘세상을 비추는 빛’, ‘사랑’, ‘조화’의 의미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으며, 각 이니셜을 담은 사각형의 모양은 CBS가 추구하는 정직함과 바른 언론의 상을 미디어 스크린에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CBS는 창사 60주년의 비전으로 ‘Beyond Radio, Smart News, Forward Mission’을 제시했다. ‘Beyond Radio’는 웹 모바일 플랫폼으로 라디오 콘텐츠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Smart News’는 스마트미디어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SNS 활용 및 이용자 참여가 대폭 강화된 새로운 뉴스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마지막으로 ‘Forward Mission’은 세계 선교와 함께 사회 선교 및 차세대 선교등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적극적 포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창사 60주년 슬로건인 “당신을 믿습니다”는, CBS가 위안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믿음’으로 힘을 주고, 갈등과 좌절이 만연한 사회를 ‘신뢰’ 운동으로 치유하며, 나아가 진실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안내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런 뜻을 CBS의 모든 방송과 행사를 통해 2014년 해 캠페인으로 구현하겠다는 다짐한 을 나타내고 있다.





contents

- 02 성경 필사본 전시회 연인원 5만명 관람
- 06 해외선교 빅토리아 의료선교 프로젝트 결산
- 07 해외선교 태국·브룬디 기독교방송 설립 지원
- 08 이단 대처 CBS, 이단 세력들과 전쟁중
- 09 CBS TV 주요 프로그램 소개
- 10 해외 연대 선교사 후원 프로젝트 '더 미션'
- 11 해외 연대 해외아동 결연 프로젝트 '힐더월드'
- 12 CBS 라디오 방송대상 6개 부문 석권
- 14 문화사역 CBS 찬양대합창제
- 15 문화사역 제25회 CBS '크리스천뮤직 페스티벌'
- 16 프로그램 CCM 캠프
- 17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 18 프로그램 찬송가 드라마 '영혼의 노래, 찬송'
- 19 모바일 후원 선교후원 모바일웹 오픈
- 20 방송기술 올 연말 ALL HD 방송 송출

미션⁺ MISSION 2014. 9 Vol.10

2014년 9월 22일 발행 | 통권10호 | 발행인 이재천 | 편집인 최인
 발행처 CBS기독교방송 선교TV본부 | 주소 158-701 서울시 양천구 목1동
 기독교방송 건물 | 전화 02-2650-7000(대표) 02-2650-7004(후원안내)

성경 필사본 전시회

CBS '성경필사본 전시회' 폐막, 연인원 5만명 관람



01

'은혜와 감동' 그 자체였다. CBS가 창사 60주년 기획으로 마련한 '한국교회 성경필사본 전시회'가 교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다.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70일 동안 서울 목동 CBS사옥 7층 특별전시실에서 전개된 '성경필사본 전시회'는 관람객 수가 5만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02

03





- 01-03 전시회 출품된 성경 필사본들
 04 전시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
 05 선교협력국 박옥배 국장이 관람객들에게 필사본을 설명하고 있다
 06 전시장을 찾은 천주교 수원교구 성경봉사자들



전시 초반 평일 200~300명, 주말 800명에 그쳤던 관람객은 한 달이 지나면서 평일 1천명, 주말 1천 4백 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말로 예정했던 전시회 폐막을 한 달 연장해야만 했다. 이후 연일 1천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으면서 8월 31일 폐막일까지 총 4만 9천 325명이 관람하는 기록을 세웠다. 9월 2일 별도로 폐막 감사예배를 드린 참석자까지 합하면 5만명에 달한다. 폐막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30일에는 1일 최다 인원인 2,126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318명의 작품 350점 전시 한국교회 신앙 회복의 전기 마련해…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을 찾은 교회는 742개 교회에 달한다. 새문안교회와 연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명성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새에덴교회, 꿈의교회 등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순천과 부산, 전주, 마산, 청주 등 전국에서 교회 버스를 이용해 단체 관람하는 사례가 끊없이 이어졌다.

필사자 318명의 작품 350점이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과 말씀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선교 초기 성경을 필사해 전도했던 신앙의 전통을 되돌아보면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의 전기가 됐다는 평가다.

5만여명의 관람객이 남긴 방명록만 150여권 감사 고백과 감탄 이어져

5만명에 달하는 관람객들은 다양한 신앙고백이 담긴 필사본들을 보면서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관람객들은 방명록에 관람소감을 남기기도 했는데, 감사 고백과 말씀 사랑에 대한 도전으로 가득했다.

“천국에 온 느낌이다”(충무성결교회 정혜자 권사)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도 별로 울지 않았던 내가 많이 울다 갑니다. 전시회를 기획하신 CBS에 감사드립니다”(무명)

“교회가 아직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정혜란 권사)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극동순복음교회 김선녀)

“성경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 성경 말씀 사랑하는 한국교회”(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성경필사본 전시회



“저희들에게 새로운 향기를 불어넣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천주교 수원교구 성경봉사자들)

“성경 필사를 보고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더욱 증진하여 나도 그 믿음 열정을 본받으렵니다”(열림교회 민은숙 할머니 권사)

“누구나 할 수는 있으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보고 갑니다”(무명)

“정말 놀랍다. 하나님께 그야말로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다”(대구 남명교회 조동석 집사)

방명록에 소감을 남긴 관람자가 3천여명에 달해 소요된 방명록만도 150여 권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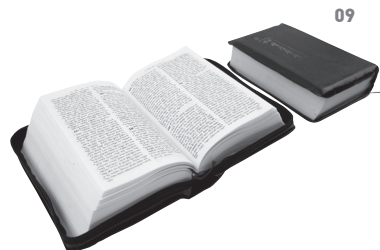
세계 최대 필사본, 목판 필사, 두루마리 휴지 양면 필사본 등 전시회 내내 화제모아

작품들은 저마다의 신앙스토리를 간직한 채 다양한 신앙고백, 다양한 재료, 다양한 정성으로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필사본, 잠언 필사 병풍, 1426장에 달하는 족자 필사본, 두루마리 휴지 양면에 기록한 필사본, 시편 8만자 필사 족자, 말씀 필사탑, 목판 필사, 깨알 필사 등 놀라운 이색작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독특한 형식의 필사본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된 필사본, 남편이나 아들을 먼저 보내고 쓴 필사본, 어머니에서 아들로 다시 손녀로 이어진 필사본, 글씨도 모르면서 완필한 필사본, 사업 실패를 필사로 극복한 작품, 무명 필사본 등 필사본마다 다양한 신앙 스토리를 담고 있어 관람 내내 감동이 끊이지 않았다. 필사 재료도 다양해서 성경필사노트는 물론이고 화선지, 족자, A4용지, 일반노트뿐 아니라 회계장부와 이면지, 컴퓨터용지 폐지, 목재, 두루마리 휴지 등 이색재료도 볼거리를 더했다.

전시 기간 CBS 직원들과 인근 교회 성도들의 자원봉사가 큰 힘이 됐다. 직원들은 전시회 안내와 해설사로 나서 주말이나 휴일도 반납한 채 관람객들을 안내했고 질서유지와 필사본 관리 등을 위해 목동중앙교회와 산돌교회, 평강교회 등 인근 교회 성도 55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성경 필사본 제출자이면서 전시 기간 내내 자원봉사에 나선 김광자 권사(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더 낮아져야겠다는 마음을 더 확실히 느꼈다”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도전을 준 CBS에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에 나섰던 김길식 목사(주백성교회)는 “목사로서 성경을 더 가까이 못했구나 하는 회개를 많이 했다”고 고백했다. 필사본 해설까



07 필사본을 관람하다 갑자기 무릎꿇고 기도하는 한 관람객

08 불교경전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경연구회 불자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09-11 주목을 끈 성경 필사본들



지 감당했던 자원봉사자 김아진 집사(산돌교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필사의 봄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소망했다. 실제로 기독교백화점마다 필사노트 판매가 급증해 물량이 떨어지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교육의 장으로 활용, 이색방문자도 많아...

이색 방문자도 많았다.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해 수녀들과 수원교구 성경봉사자 회원들, 불교 사경연구회 회원들도 전시회를 찾았다. 감동에 겨워 하모니카 연주도 흥을 돋운 노신사, “말씀이 있는 이 곳이 천국이다”를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전도사, 필사본을 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분, 필사본 관람을 마치고 포토존에 앉아 오래 묵상하던 권사님 등 전시 기간 내내 은혜와 감동의 현장들이 이어졌다. 이밖에 교계 주요 교단장들과 CBS 역대 이사장과 사장들, 타 방송사 직원, 신학생들도

대거 전시회를 찾았다.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아 신앙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CBS 전직원들도 '성경필사' 동참

CBS는 '성경 필사본 전시회'가 큰 호응을 얻었는데 힘입어 내년에도 필사본전시회를 기획하는 것은 물론 교회학교 대상 필사본 공모전 등 다각도의 후속 행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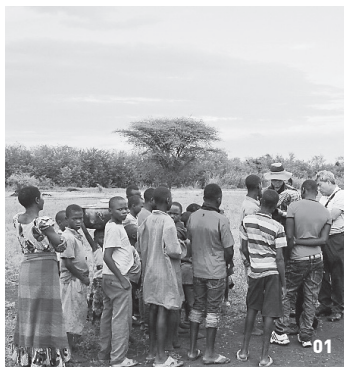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회로 직원들이 은혜를 받아 전국 직원이 참여하는 성경 필사본을 쓰고 있으며 오는 12월 15일 창사60주년 기념식에 맞춰 봉헌할 계획이다. CBS는 이번 전시회가 한국교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신앙 안에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다가가는 일에 진력하겠다는 입장이다.

CBS는 전시회 폐막에 맞춰 9월 2일(화) 오후 3시 CBS 사옥 7층 전시장 현장에서 필사자들과 함께 폐막 감사예배를 드리고 전시 작품들을 필사자들에게 돌려줬다. 🐟

- 12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았는데, 단체 관람의 경우 방송시설도 안내했다
- 13 전시장을 찾은 한 비구니 모습
- 14 옛 전송 용지에 기록한 필사본
- 15 두루마리 휴지 양면에 볼펜으로 깨알같이 66권을 기록한 필사본. 화제가 됐던 작품



해외선교 프로젝트



CBS가 또 하나의 글로벌 선교 프로젝트를 추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 하는 동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 의료선교선을 띄워 의료 혜택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빅토리아 호수 의료선교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

광활한 빅토리아 호수, 그러나 열악한 의료 환경

빅토리아 호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로, 호수 안에는 3천 여 개의 섬이 있고,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로 이어지는 호수 주변에는 3,5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호수의 물은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고, 주민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다.

손에 박힌 가시를 빼내지 못해 한 쪽 팔이 불구가 되어 버린 사람, 말라리아를 제 때 치료하지 못해 합병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 취재진들이 만난 현지 환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케이스였다.

거리가 멀거나 치료비가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없어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약을 사오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의 현실이에요”라고 말하며 쓴웃음을 짓던 한 여의사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다.

호수에 ‘중앙살림호’ 의료선 띄워

이미 20년 전부터 동아프리카 일대에서 선교사역을 펼

- 01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현지인들
- 02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현지 아이
- 03 8월 2일 진수식을 앞두고 한참 건조중인 의료선교선 ‘중앙살림호’

쳐온 김평욱 선교사(월드미션프론티어 대표)는 빅토리아 호수 일대 주민들을 보며 ‘의료선교선’의 비전을 키워왔다고 전한다.

다행히 한국의 전주중앙교회(담임: 차상영 목사)와 미국의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2년 전부터 본격적인 의료선교선 건조에 들어갔다. ‘중앙살림호’라 이름붙인 이 배는 수술실과 입원실, 진찰실까지 겸비한 의료선교선으로, 지난 8월 2일 진수식을 갖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의료사역을 한다는 목표로 건조작업의 마무리에 힘쓰고 있다.

CBS ‘빅토리아 호수 의료선교 프로젝트’ 4부작 방영

그래서 CBS는 올해 초부터 ‘빅토리아 호수 의료선교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6개월에 걸쳐 4부작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4주간, CBS TV <미션 2014> 시간을 통해 현지 상황과 의료선교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집방송을 방영했다. 그 결과 시청자들과 함께 5천만원 상당의 응급보트를 포함해 1억이 넘는 후원금을 아프리카 현지에 보낼 수 있었다. 또 8월 2일 진수식에 참여하는 한편 아프리카미래재단 의료봉사팀과 함께 현지를 찾아 의료선교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

(후원문의 02-2650-7004)

빅토리아 호수에 의료선교선 띄워
창사 60주년 글로벌 선교 프로젝트 추진
8월 2일 진수식, 11월 본격 진료





CBS, 태국에 이어 브룬디에도 기독교방송 시설 지원

‘태국 기독교방송 설립 프로젝트’, 현지 기독교 방송국 60개 설립
아프리카 브룬디 선교방송 장비, 최첨단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

CBS가 아프리카 브룬디의 한 라디오 방송국의 노후된 방송장비를 최첨단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해줬다.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듣는 브룬디 국민들은 잘 끊기고 원활하지 않던 라디오 방송을 보다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위치한 브룬디 공화국은 10여 년이 넘는 오랜 내전으로 인구 대부분이 가난과 상처로 허덕이고 있는 나라다. 이같은 아픔이 있는 브룬디에 지난 2000년 희망을 이야기하는 라디오 방송국 ‘룬’이 개국했다.

‘룬’은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자는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세워졌다. ‘룬’은 브룬디의 수도인 부줌부라 전역에 송수신할 수 있는 방송 규모지만 노후된 송신기와 방송 장비로 전파가 자주 끊기는 등 원활한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지 선교사를 통해 이같은 어려움을 전해들은 CBS는 지난 8월 말 최첨단 디지털 송신장비와 디지털 파일 검색이 가능한 CBS 나홀로 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직접 브룬디를 찾았다.

브룬디를 방문한 최춘우 기술국



- 01 CBS가 지원한 장비를 익히는 브룬디 ‘룬’방송 진행자
- 02 CBS가 지원한 기술장비(나홀로 시스템)를 설치하고 있는 브룬디방송국 현지 엔지니어
- 03 CBS가 설립한 ‘태국기독교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현지 스태프
- 04 CBS가 방송장비를 지원한 태국의 한 기독교 방송국 외부전경

장(전북 CBS)은 “‘룬’방송국은 60년대 수준이었는데 이번 CBS의 장비 교체를 통해 2000년대 수준의 현대화된 디지털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CBS의 해외 기독교 방송 지원은 브룬디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교회 협력사업인 ‘CBS 태국기독교 방송국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태국 48개 지역에 소출력 FM 라디오 방송국을 세웠다.

소출력 FM 라디오 방송국은 태국 지역 곳곳에 있는 교회 건물에 30m 높이의 안테나를 세워 교회에서 설교하고 녹음한 내용들을 주변 지역으로 방송하고 있다. 올해도 태국 기독교방송 지원에 나서 현지어 소출력 방송국 10여개를 세울 후원금 1억2천여 만원을 모을 수 있었고 내년 1월 CBS 60주년에 맞게 60번째 방송국 설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태국이나 브룬디의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 1천 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소출력 FM라디오 방송국 설립과 노후된 방송장비 시설을 교체할 수 있다.

CBS는 앞으로도 선교가 어려운 나라에서 방송장비 지원과 소출력 FM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이다. 🐟



이단과의 전쟁

CBS가 이단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3년 동안 ‘신천지 OUT’ 캠페인을 통해 신천지 척결에 앞장서온 CBS에 대해 신천지뿐 아니라 안상홍증인회와 구원파 등 각종 이단들이 전방위적으로 소송을 걸어오고 있어 한국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안상홍증인회(이하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 교주 장길자)와 구원파 박옥수 측이 CBS의 비판 보도와 관련해 최근 거액의 민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단 신천지(교주 이만희)를 비롯해 하나님의교회, 구원파 등 한국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정 파괴 행위까지 이단 집단의 반사회성에 대해 비판 보도를 해왔던 CBS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된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는 이단들의 반사회성을 알리는 집회를 보도한 CBS의 4월 28일자 보도와 관련해 최근 남부지방법원에 CBS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정정 반론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하나님의교회측은 이번 소송 외에도 대학가를 파고드는 이단 세력의 문제점을 비판한 CBS 보도에 대해 정정 반론보도와 7억원의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바 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에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하나님의교회측이 언제 CBS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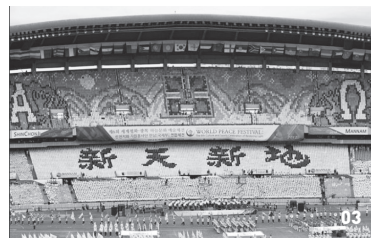
구원파 박옥수측인 기쁜소식선교회도 CBS의 비판 보도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구원파 박옥수 씨가 신도들에게 특정 식품을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3년 전 뉴스 보도를 문제 삼았다.

앞서 CBS는 3년 전부터 ‘신천지 OUT’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이단 신천지 집단을 척결하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벌인 결과, 신천지측으로부터 5건의 기사와 다큐프로그램 1건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5천만원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지난 4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CBS는 승소했다. 신천지측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법적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단 사이비단체들은 이처럼 CBS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단 세력과 최전선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BS 이재천 사장은 “CBS는 그 어떤 이단세력과는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CBS는 한국 교회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담대히 이단 세력과의 맞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각별한 관심과 기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이단 세력들, CBS 무차별 소송 구원파, 하나님의교회, 신천지와 전쟁중 CBS “타협 없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



01 2012년 7월 ‘신천지아웃’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02 신천지아웃 사이트 antisj.cbs.co.kr

03 신천지의 카드섹션 모습



CBS TV 주요 프로그램 소개

성경공부

성서학당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CBS TV 대표 프로그램으로 송태근, 김기석, 신우인, 이영재 목사, 구미정 교수 등이 요일별로 성경을 가르친다. <방송시간 : 월-금 오전10시, 밤9시, 새벽4시>

성경사랑방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소그룹 사랑방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다. 월요일에는 박은조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화요일에는 백소영 교수의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수요일에는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 목요일에는 임중수 목사의 '예수 생애 따라가기' 등 요일별 다른 주제로 특성화했다. <방송시간 : 월-목 : 새벽2시, 오전7시30분, 낮1시20분 / 수-토 : 저녁7시>

넌시랭의 신학편지 성경에서 의문을 느끼거나 신학적으로 고민되는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며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는 프로그램.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방송시간 : 금 낮2시30분, 토 낮1시20분, 밤9시50분, 화 낮12시30분>

간증과 이야기

새롭게하소서 1980년 9월1일 첫 방송 이래 35년 째 이어오고 있는 국내 대표 간증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달은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스토리가 감동을 준다. <방송시간 : 월-목 오전9시, 밤10시20분>

새롭게하소서 '현장' 스튜디오가 아닌 한국교회로 직접 찾아가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놀라운 간증 이야기 <방송시간 : 금 오전9시, 밤10시20분, 주일 낮12시30분>

수호천사 시련과 아픔 속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교회와 함께 섬김을 실천하는 나눔 프로그램 <방송시간 : 목 2시30분, 토 10시20분, 주일 오후3시>

미션스캐치 VJ가 한국교회 선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감동과 유익한 정보들을 생생하게 전한다. <방송시간 : 월 오후2시30분, 화 낮1시10분, 목 저녁6시40분, 토 오전11시30분, 주일 저녁7시50분>

말씀

CBS 파워특강 장경동 목사와 김문훈 목사가 열정과 웃음으로 뜨거운 말씀을 생생하게 전하는 프로그램

<방송시간 : 월-목 오전10시50분, 저녁8시10분>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쾌한 특강 프로그램 <방송시간 : 월-화 저녁7시, 금-토 오전10시50분>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광야여행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이스라엘 성지 현장을 돌며 신앙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하는 말씀 프로그램 <방송시간 : 금 저녁8시10분, 토 오전8시50분>

CBS 설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전하는 은혜와 도전의 말씀. 모두 150여명의 유명 목회자들의 설교가 총망라되었다. <방송시간 : 새벽5시, 5시30분, 6시, 6시30분, 오전8시10분, 낮12시, 12시30분, 낮2시, 오후3시20분, 오후4시40분, 오후5시50분, 저녁7시40분, 밤11시30분, 새벽3시>

뉴스

CBS뉴스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하는 뉴스 프로그램 <방송시간 : 방송시간 : 밤 9시50분, 오전7시>

- 01 성서학당
- 02 성경사랑방
- 03 넌시랭의 신학편지

- 01 새롭게하소서
- 02 수호천사

- 01 CBS뉴스
- 02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 03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광야여행



해외 연대 프로젝트

기근과 질병, 끝나지 않는 가난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삶을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다.

CBS와 기아대책이 공동 기획해 2013년 3월 방송한 '더 미션' 시즌1에 이어지는 선교사 후원프로젝트 '더 미션 2'는 필리핀, 케냐, 잠비아, 탄자니아 등 총 4개국의 선교지를 취재, 방영해 선교지의 실상을 알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참여를 유도했다.

옛 노예무역이 이루어졌던 아픔의 땅, 탄자니아의 작은 섬 잔지바르. 인구의 98% 이상이 이슬람인 이곳에서 영적으로 묶인 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박현석·오영금 선교사.

필리핀의 깊은 오지 마을, 사람들을 피해 강 건너 숲 속에 숨어 살면서 제대로 된 집도, 전기도 없이 사소한 질병으로도 목숨을 잃어야 하는 두마갓 원시부족들. 무지와 가난, 악습의 굴레에 갇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소망의 사람' 윤봉로 선교사.

가난하고 버림받은 잠비아의 아이들, 일흔의 나이에 남은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듯, 그 땅의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랑의 사람' 강영수·양은희 선교사.

한 낮의 기온이 48도까지 치솟는 케냐 북부지역 코어, 전기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이 곳에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 전갈에 물린 아이가 아무런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그저 죽어야만 하는 불모의 땅이다. 그 땅에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이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최인호 선교사.

CBS TV '더 미션 2'는 이들 선교사들의 생생한 선교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땅 끝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삶,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

이들의 사역 현장은 지난 3월 CBS TV를 통해 소개된데 이어 오는 12월에도 다큐영상으로 성도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 🐟



“땅끝까지 주의 사랑을…” 잠비아·탄자니아·케냐 현지를 가다 선교사 후원 프로젝트 CBS ‘더 미션2’



01 탄자니아 아이들과 함께. (박현석·오영금 선교사)

02 잠비아에서 사역하는 강영수·양은희 선교사. (강영수·양은희 선교사)



CBS는 지난 60년 동안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 아래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힘써왔다. 특별히 60주년을 맞은 올해 CBS는 월드비전과 함께 하는 해외아동 1대1 결연 캠페인 2014 'Heal the world'를 통해 더 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Heal the world'는 2012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나눔 캠페인으로, 기아와 질병, 내전 등의 절망적 상황에 내몰린 제3세계 아동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기획됐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아동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지난 2년 동안 부룬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르완다, 우간다, 에티오피아, 차드, 잠비아 등 8개국 4,500여명의 아동들에게 1:1 후원 결연을 맺어줘 아이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또한 평화화해구축센터 건립과 주택개량보수사업, 우



물지원 식수개발, 보건 사업 등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통해 복지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로 인해 질병에 노출된 아동들이 치료를 받고, 깨끗

한 식수를 마시며, 환경이 개선된 곳에서 살게 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발판이 마련됐다.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2014 'Heal the world'에서는 "No more Tears"(눈물은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 아래 가나와 네팔, 알바니아, 케냐, 엘살바도르 등 4개 대륙 5개 나라를 찾아가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이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밝은 미소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할 계획이다.

이번 힐더월드 여정에는 인천내리교회 김흥규 목사,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 은평교회 한태수 목사, 대구칠곡교회 오세원 목사, 한신교회 이운재 목사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했다. 그 여정 중에 만난 감동과 눈물의 이야기는 오는 11월 CBS TV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누시다>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

No More Tears “아이들의 웃음을 찾아주세요” CBS-월드비전 'Heal the world' 4천 5백명 아이들 1:1 결연



CBS 라디오

“강한 라디오” CBS, 한국방송대상 6개 부문 수상

9월 3일 방송의날을 맞아 펼쳐진 제 41회 한국방송대상에서 CBS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6개 부문에서 작품상과 개인상을 수상했다.

CBS 라디오는 특집 부문에서 <소리를 보여드립니다>, 음악 구성 부문에서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로 각각 작품상을 수상했고, 뉴스 보도 부문에서는 <아프리카 노동자 착취 연속 보도>, 지역 뉴스 보도 부문에서 전북 CBS의 <농약범벅 ‘친환경 인삼’ 한방 화장품 보도로 작품상을 각각 수상했다.

올해 방송대상에서 CBS는 라디오 작품상 전체 13개 부분 중 작품상 4개를 차지해, 출판사 중 가장 많은 작품상을 수상했다. 지상파 3사 라디오 중, 단 한 편의 작품상도 수상하지 못한 곳도 있어서 CBS의 4개 부분 수상은 더욱 돋보였다.

개인상 부분에서도 CBS 라디오는 방송 진행의 꽃인 라디오 진행자 상에 <저녁스케치> 배미향 DJ, 앵커상 부문에 <하근찬의 아침종합뉴스> 하근찬 앵커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출근길 뉴스 프로그램과 퇴근길 음악 프로그램의 앵커와 진행자들이 나란히 개인상을 받게 된 것이다.



01 (왼쪽부터) CBS 김민재 기자와 손근필 부장, 이균형 기자.
02 (왼쪽부터) 하근찬 앵커, 공혜량 부장, 배미향 DJ.

CBS 라디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방송대상 6개 부문 수상으로 ‘시사 뉴스’와 ‘음악’에 강한 라디오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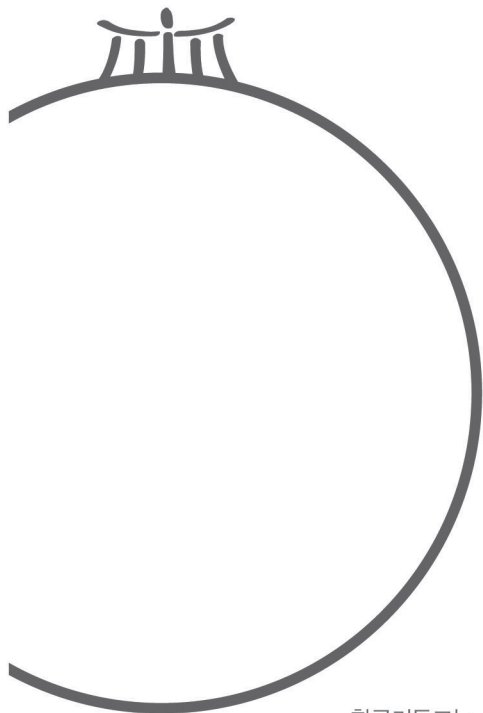
특집다큐 ‘소리를 보여드립니다’ UN-DPI 금상 수상 방송대상, 실험정신상 등 한 해 7개 상 휩쓸어

CBS가 제작한 60주년 특집다큐 <소리를 보여드립니다>가 올 한해 각종 방송 관련 상을 독식하면서 방송가를 휩쓸었다. 라디오 특집 다큐 <소리를 보여드립니다>는 장애인 스마트권에 대한 문제 제기로, ‘사회적 약자와 낮은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던 CBS의 의제 설정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사례로 꼽힌다.

<소리를 보여드립니다>(PD: 손근필, 여미영)는 실험성과 작품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4 한국PD대상 라디오 실험정신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4 뉴욕 페스티벌’에서 UN-DPI 금상 및 소셜 이슈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UN-DPI상은, 유엔이 한 해 동안 UN정신을 구현한 프로그램에게 주는 상으로 금상(Gold Award)은 이 부문 최고상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과 한국방송협회 방송대상 작품상까지 수상하면서, 이 작품은 방송작품에 주어지는 주요 상들을 모두 수상한 셈이 됐다. 그 밖에 피디연합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현대오일뱅크 좋은세상 나눔이상 등 수상 행렬은 한 해 내내 이어졌다.

제작자 손근필 PD는 잦은 수상보다 가치 있는 일로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CBS의 존재 이유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된 점을 꼽으며 장애인 스마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





역사, 오래전에 잉태된 미래

Korean Christian Museum

한국기독교는 근현대사 속에서 교회의 참된 역할을 다하며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근대화,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에 직접 기여한 한국기독교의 역사는 곧 한국의 근현대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소홀했던 결과, 한국교회의 소중한 전통을 계승하지 못하였고 그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뜻을 모아 신앙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늘의 삶을 점검하며 미래를 향한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100년 후의 한국교회를 준비하는 이 사명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건립위원장 **이영훈**

공동위원장 **김근상, 김동엽, 김철환, 박동일, 박종덕, 손달익, 양병희, 이동춘, 전용재, 조성암, 조일래**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건립되면,



역사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기여를 알림



기독교 문화콘텐츠
활성화



연구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전국기독교문화유산
네트워크 형성



역사를 매개로 한
교회의 연합

KCM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후원방법

정기후원 '벽돌 한장' (월1만원) 또는

일시후원 '부지 한 평' (100만원)을 후원해 주십시오!

* 후원하신 모든 분의 이름은 '한국기독교 역사를 이은 사람들'로 영구히 기록되며,
100만원 이상 후원자의 이름은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내 동판에 새겨집니다.

후원계좌 | 예금주: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신한은행 | 100-028-757199

우리은행 | 1005-702-465181

후원문의 02)3673-3186

‘감동의 눈물’ 흘린 CBS 찬양대합창제 8개 교단 9개 교회 참여... 연합과 일치 ‘풍성’

CBS(사장 이재천)가 창사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CBS찬양대합창제>가 큰 울림을 남겼다.

지난 6월 21일 수원명성교회에서 열린 찬양제에는 8교단 9교회에 속한 2천여 명의 찬양대가 참여했다. 각 교단과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규모로 보나 수준으로 보나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합창제로 열렸다는 평가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열려 어려운 때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회복의 찬양제가 됐다는 평가다.

이번 찬양제에는 새중앙교회(박중식 목사),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명성교회(김삼환 목사), 제일교회(노운식 목사), 지구촌교회(진재혁 목사), 자양교회(이철규 목사), 선린감리교회(권구현 목사), 수원명성교회(유만석 목사)가 각 교단을 대표해 참가했는데, 지난 6개월간 시간을 쪼개가며 연습한 아름다운 찬양은 관객은 물론 참가자들 서로의 마음을 울리기엔 충분했다. 각 교회가 한 곡 한 곡 찬양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아멘이 터져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너무 감동적인 찬양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합창제의 세계적인 거장 윤학원 예술감독이 합창제 전반을 조율하면서 2천 여명의 전체 참가자가 한 목소리로 드리는 마지막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지휘했다. 마지막 곡을 올려드린 후 감동에 겨운 참가자들이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합창제를 통해 각 교회별로도 서로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고 교회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연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너무 좋았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

<관련 문의 02-2650-7908>



01-02 윤학원 감독의 지휘하에 수원명성교회 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전체 참가자 2천여 명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한목소리로 찬양했다
03-05 찬양제합창제가 참가한 각 교회 성가대



제25회 CBS ‘크리스천뮤직 페스티벌’ 10월 24일, 백석대에서 개막 전국과 미주 예선 거친 9개 팀 본선 진출

25년을 이어 온 찬양 사역자의 산실, ‘CBS 크리스천뮤직페스티벌’이 오는 10월 24일(금) 오후5시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개최된다. ‘CBS 크리스천뮤직페스티벌’은 소리엘(장혁재, 지명현), 조수아, 워드(김상훈, 오택근), 에이멘, 강찬 등 크리스천 뮤지션들을 배출한 국내 최고 권위의 경연으로 크리스천 음악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독교 문화 전반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CBS(사장 이재천)는 기독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제25회 크리스천뮤직페스티벌도 더욱 충실하고 영향력 있는 대회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5회 대회는 예년과 달리 예선을 전국 4개 지역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대구, 부산 지역에서 예선을 개최함으로써 찬양 사역자나 CCM 가수를 꿈꾸는 이들이 좀 더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순한 예선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을 통해 간단한 클리닉

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두 차례의 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자 9팀은 오는 10월 24일 본선에 참여한다. 또 미주지역에서도 9월 6일 미주본선을 치러 대상 수상자가 한국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창작곡 뿐 아니라 기성곡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며, ‘옥상달빛’, ‘네이브로’ 등 실력 있는 기성가수들과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지난해 제24회 ‘크리스천뮤직 페스티벌’ 참가자들



‘안전한 나라 행복한 사회’ 〈2014 통(通)해야〉 콘서트



‘안전한 나라, 행복한 사회’라는 주제로 6월 14일(토) 오후 7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렸던〈통(通)해야 콘서트〉가 큰 울림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04년 남북의 화해 협력을 기원하는 금강산 현지 콘서트로 첫 선을 보인 이래,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로 확대되며 국민화합과 소통의 아이콘으로 기능해 온 〈통(通)해야〉는 올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낸 경기도민들과 특별히 안전관련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저의 치매(치명적인 매력)에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우실 걸요?”

자랑인 듯 자랑 아닌 자랑 같은 이런 말로, 요즘 라디오 청취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놔다 하는 DJ가 있어 화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배우 이성재 씨가 그 주인공.

이성재는 지난 5월 19일 봄개편을 맞아 CBS 라디오 ‘CCM 캠프’의 DJ로 변신해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성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 배우 중 한 명으로, 1998년 <미술관 옆 동물원>을 통해 데뷔한 이후 <주유소 습격사건>, <홀리데이>, <신라의 달밤>, <공공의 적> 등에서 넘치는 카리스마와 선 굵은 연기로 호평을 받아왔다. 그런 그가 라디오 DJ로, 그것도 CBS 크리스천 음악프로그램의 DJ로 변신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모태신앙인 그는, 학창시절 진로로 고민할 때 목회자의 꿈을 꾸기도 했을 정도로 신앙심이 있는 배우다. 아무리 촬영 스케줄이 바쁘더라도 주일은 반드시 지킬 정도로 열심이었다.

하지만 영화배우로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면 갈수록 신앙에 대한 나름의 갈증이, 마음 한편을 누르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한국 가스펠 프로그램의

대명사인 CBS 라디오의 ‘CCM 캠프’를 알게 되면서 라디오 진행자로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CCM 캠프’ 진행은 그가 오랫동안 이루고 싶어 했던 신앙적인 꿈의 또 다른 성취인 셈이다.

‘시간의 십일조’라는 개념으로 매일밤 청취자들과 만나고 있는 이성재 DJ! 그의 고백을 빌어보자면, 정작 본인이 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단다.

매일밤 자정에서 새벽 두 시까지 이어지는 ‘CCM 캠프’는 하루의 끝자락이자 새로운 하루의 시작 앞에서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 해주는 가스펠 프로그램이다.

CCM 캠프를 제작하고 있는 김동혁 PD는, 라디오 진행이 처음인 초보 DJ 이성재의 매력에 대해 “무엇보다 솔직함과 다정다감함”이라고 손꼽는다. “애청자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만의 담백하고 따뜻한 신앙의 눈으로 화답해주는 것이 청취자들에게 어필한 게 아닐까” 설명한다.

DJ의 열정에 감동한 청취자들이 “제 얘기도 한 번 들어주실래요?” 하면서 찾아오는데 그런 청취자들이 매일밤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성재의 CCM 캠프는 CBS 라디오 표준 FM(수도권98.1MHz)을 통해 매일밤 12시에서 2시에 만날 수 있다. 🐟



영화배우 이성재, 라디오 심야 DJ로 ‘치매’ 발산 CBS 크리스천 음악 프로그램 ‘CCM 캠프’ 생방송 DJ 맡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은' 윤도현밴드(YB)

윤도현을 전도한 YB 베이시스트 박태희의 신앙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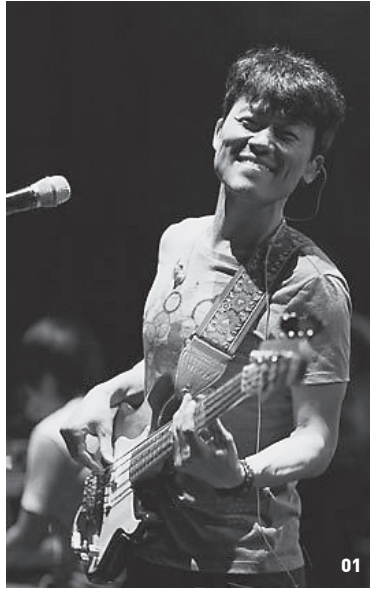
대한민국 대표 록밴드 'YB'의 든든한 만형, 박태희는 최근 교회에서 안수집사 직분을 받을 만큼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그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며 'YB' 활동 초창기에는 '비신자' 멤버들과 가치관의 차이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고백했다.

박태희는 'YB' 안에서 신앙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며 멤버들을 전도한 과정을 털어놨다. 먼저 멤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지방공연을 가더라도 예배만은 꼭 참석함으로써 예배하는 삶을 보여줬다. '꿈을 이룬 요셉'과 같은 기독교 고전만화를 김진원의 드럼 위에 살짝 올려놓기도 하고 좋은 신앙 서적이 있으면 슬그머니 멤버들 방에 가져다놓기도 했다.

“드러머 진원이는 아티스트로서의 도전 정신과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예요. 진원이가 예술가로서의 한계에 좌절하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겹쳤을 때 먼저 기도를 부탁해왔어요. 도현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을 당시 아들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괴로워하다 기도를 부탁하며 다가왔고요.”

그 때를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해 이제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고 있는 윤도현은 깜짝 영상 메시지를 통해 태희 형을 향한 감사를 전했다.

“태희 형이 처음에는 'YB'안에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이제 와서 말하지만 저희들끼리는 '형이 우리를 전도하려고 긴 세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다고 얘기하죠.(웃음) 결국 그 믿음이 결실을 거두었



01 YB 베이시스트 박태희

02 YB멤버들(좌로부터 박태희, 허준, 윤도현, 김진원, 스캇 할로웰)

고요. 저 역시 이제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틀에 매이지 않는 파격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록밴드 'YB'. 일

견 이들의 록밴드로서의 이미지와 '절대자'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보인다. 박태희는 음악적 취향도 성향도 제각기 다른 'YB' 멤버들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 장수 록밴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신앙의 힘이라며 이제 'YB'는 '공연 전 기도'를 무언의 의식처럼 지킨다고 고백했다.

“도현이가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무대에 오르기 전 기도를 못하면 멤버들이 난리가 나죠. 누군가는 부산하게 도현이를 찾아서 꼭 기도를 챙깁니다. 'YB'가 걸보기에 여느 대중밴드와 다를 게 없어보여도 저희는 '절대자'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 보다 깊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박태희는 평소 신앙 서적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YB의 홈페이지에 올려왔다. 약 800여 개에 달하는 글 중에 윤도현밴드 앨범에 수록된 곡도 4곡이나 된다. 🐟

〈'새롭게 하소서' 방송 안내 : 매일 오전 9시, 저녁 10시 20분〉



찬송가 탄생 스토리를 라디오 드라마로 CBS 라디오 드라마 '영혼의 노래, 찬송' 뜨거운 반응



최근 찬송가를 소재로 한 라디오 드라마가 화제다. 지난 7월 20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CBS 라디오 <영혼의 노래, 찬송>이 바로 그 주인공.

CBS창사 60주년 특별기획물로 제작, 방송되고 있는 이 라디오드라마는 찬송가가 탄생하기까지의 스토리를 극화해서 방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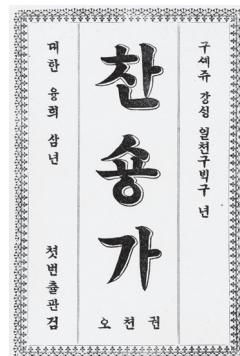
첫 회 방송인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찬송가 413장)는 대서양에서 불의의 침몰사고로 네 딸들을 잃은 한 변호사의 슬픔과 인생 역경, 그리고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첫 방송된 주간예 세 월호 사건 100일이 포함되면서, 온 국민의 슬픔과 염원을 반영하듯,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에 대한 청취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청취자 진필규 씨는 "첫 회 '내 평생에 가는 길' 1편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너무 좋았고 아이들도 2편을 너무 궁금해 합니다. 혼탁한 세상에 삶의 희망을 전하는 찬송가 이야기 많이 발굴해 전해주세요"라는 반응을 전해왔고 다른 청취자는 "올해 안산의 여름은 많은 치유의 영들이 새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전직원 영성훈련 절찬리 진행 중

제2차 CBS 직원 영성훈련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됐던 '제1차 직원 영성훈련'에 이어, 내년까지 2년 동안 제2차 영성훈련을 갖고 있다. CBS는 전직원 대상 영성훈련을 2~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은 TD와 성경통독원, 아버지학교 등 내실있는 훈련 과정으로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 🐟



가는 길'은 듣는 이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며 문자를 보내왔다.

한국 크리스천들이 애창하는 찬송가 12편을 선정하여 탄생스토리와 찬송가에 얽힌 감동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찬송가드라마 <영혼의 노래, 찬송>은 지금까지 '내 평생에 가는길' 외에, '예수 사랑하심은'(찬 563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찬 428장)등 모두 4편을 방송했고, 앞으로 8편의 찬송가를 추가로 방송할 예정이다.

방송시간은 매 주일 아침 오전 10~10시 30분까지 30분 동안이며, 오는 11월 첫 주까지 16주 동안 방송된다. 이전에 방송된 찬송가드라마는 팟캐스트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하다. 🐟

01 1990년대 초반 찬송가 표지

02 CBS 특집 드라마 <영혼의 노래, 찬송> 녹음현장

03 찬송가를 부르는 1930년대 유년 성가대 사진





스마트폰으로 CBS 방송선교사 신청하세요

CBS 선교후원 모바일웹 (love.cbs.co.kr/m) 오픈

CBS 선교후원 모바일웹이 오픈됨에 따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CBS 방송선교사 가입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CBS 방송선교사는 CBS의 방송선교사역에 동참하는 후원회원이며, CBS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섬김과 나눔의 동역자입니다. CBS는 방송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송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TV,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100만 방송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CBS 방송선교사 신청하기

- ① 우측 QR코드 촬영
(또는 <http://love.cbs.co.kr/m> 입력)
- ② '후원신청하기' 누르기
- ③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 선택
- ④ 입력창에 후원 정보 입력
- ⑤ CBS 방송선교사 가입완료



CBS 선교후원 문의 : 02-2650-7004

○...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 점심식사 후 쏟아지는 줄음과 더위로 나른한 시간. 사무실 저쪽에서 낯선 얼굴의 남자 어르신 한 분이 걸어 오셨다. 마침 7층에서 한국교회성경필사본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관람객이신 줄 알고 '아~~ 7층으로 가셔야 하는데... 왜? 6층으로 오셨을까?'

올해 76세로 순복음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은 야간에 교회 경비 일을 하신다고 한다. 아침에 퇴근해 잠을 자다보다 보면 이렇게 목동까지 오기는 쉽지 않은데... 여름휴가 기간이라 마음 먹고 오셨다면서 하얀 봉투를 내미신다. 남루한 모습에 난생 처음 후원을 한다면서 내미는 봉투. 영수증을 해 드리기 위해 후원금을 확인하다 너무 많은 액수에 깜짝 놀랐다. 야간에 교회 경비를 서다 쉬는 시간이면 늘 CBS를 시청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 방송선교를 위해 애쓰는 CBS에 고마워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2년간 적금을 넣고 오늘 그 적금을 탔다고 하신다.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형편에 혹 마음이 변할까 싶어, 마침 휴가로 CBS 구경도 할 겸 오셨다면서 기쁘게 웃으셨다. 가족들이 알면 마음에 상처 받을까 걱정되어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면서 마치 오랜 숙제를 마친 듯한 활기찬 마음을 전하셨다.

○... “여보세요~ 지금 헌금하고 있는 후원잔데요...” 지난 8월 11일,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다. 혹시나 해지를 요청하는 전화가 아닐까 우려했는데, 권사님은 조심스레 “제가 돈을 좀 모았는데 혹시 CBS에서 가지러 와줄 수 있나요?, 서울사람들에게야 한 끼 점심 값이겠지만 난 어렵게 모은 돈이거든요”라고 하신다.

사시는 곳을 여쭙보니 이름도 낯선 경상도 어모면이라는 것이었다. ‘우와 왕복 8시간은 걸리겠구나... 어떻게 모시러 가지?’ 여러 차례 통화 끝에 8월 19일로 D-day를 잡고, 새벽 6시에 서울에서 김천까지 차를 몰고 가 권사님을 모시고 돌아왔다. 방송국을 두루두루 견학시켜드린 뒤 권사님으로부터 건네받은 후원금 봉투에는 자그마치 1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농사지은 맛있는 사과 2박스와 함께...

기념사진이나 방송은커녕 이름조차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신 권사님은 심지어 CBS에서 예매해드린 기차표조차 환불하시고 자비로 귀가하셨다. 나중에 확인 전화를 드리니 “한 폰이라도 아껴서 지금처럼 CBS가 복음 방송의 역할을 잘 해 달라”고 하신다. 권사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타고 CBS에 대한 사랑이 전해졌다.

후원자
사연

방송기술



CBS, 올해 안에 ALL HD 방송 송출


CBS TV, 연말까지 제작 송출 시스템 완료 계획
한국교회 후원 덕분... “올 해까지만” 지원 요청

CBS TV의 HD 방송 시스템 도입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CBS는 지난 8월 25일 시스템 구축 참여를 원하는 20여개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한편 HD 시스템을 설치할 현장을 공개했다. 이어서 9월 15일까지 입찰 업체들로부터 HD 공사제안서를 제출받고 9월 17일 업체들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9월 19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HD TV 시스템 공사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CBS는 이미 한국교회 후원에 힘입어 HD 송출 시스템을 갖춘데 이어 H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카메라와 편집기 등을 구매한 바 있다. CBS는 HD 송출 시스템뿐 아니라 라디오 송출과 송신소까지 일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융합 네트워크센터를 마련해 방송 기술상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러 해 동안 HD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금방송에 참여해 준 한국교회와 시청자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은 결과다.

이번 막바지 공사는 HD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NPS, 아카이브 시설, 종합 편집실 및 각종 HD 제작 시스템을 완료하는 것으로 60주년을 맞는 올해 창사기념일, 12월 15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공사가 마

무리되면 CBS TV도 보다 선명한 HD 화질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제작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지역 SO망에 대한 HD 채널 배정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완료할 HD 시스템 구축 공사는 60억 가까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다시한 번 한국교회와 시청자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CBS는 연말 즈음 ‘HD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후원 모금방송’을 기획 준비하고 있다. 이번 모금방송은 60주년을 맞는 CBS가 올 한해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지 소개하면서 HD 방송시설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BS의 주인은 한국교회라는 인식 하에 CBS에 이사를 파송한 11개 주요교단은 물론 전체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01 2012년 3월 TV 송출시스템을 갖추고 테일 컷팅식을 갖고 있다

02 HD와 라디오 송출, 송신소 관리까지 한 곳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융합네트워크센터

03 올해 안에 HD 시스템으로 전환될 TV 부조정실 전경



02



03

생기를 불어 넣는 민족교회



기독교 **상동교회**
대한감리회

Sang Dong Methodist Church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0(구, 남창동 1)

TEL.(02)755-1136 / 752-1136

FAX. (02)776-8386

www.sangdong.org



담임목사 **서철**



- 원로목사 이동학 김광식 이건명
- 부담임목사 이기석 서준원
- 소속목사 서영석 송충석 박종건 강원모
이충범 정호현 이찬석 신동욱
황병배 류지영 이명성 성희연
- 파송선교사 김정환(미국) 양정하(스리랑카)
송충석(케냐) 박종건(스리랑카)
류지영(러시아)
- 원로전도사 홍윤분 강연태
- 심방전도사 조강현 김수정
- 교육전도사 김명숙 이용일 배명 박한중
- 사회복지전도사 이요셉 (기아대책)
- 협력전도사 임완례(한양대 구리병원)
이헌주(청평예배당)

원로장로

박광희 이봉임 유인근 윤 달 이용직 김석영 이유근 서성욱 류제연 류은옥
인규진 이태호 임성택 박세용 배석재 박종원 임규택 나인용 백석기 오동근
하상천 송미섭 최용선 진익호 임재민 박희웅 이재관 정남규 최문자 서성환

명예장로

홍해은 김안숙 이명희 최병국

시무장로

임덕순 임광진 박재근 배양재 이공택 박민용 김진휘 김효권 장동일 김종하
서대원 변영숙 박명래 양상준 김보기 김좌진 박종범 이성택 서문원 서경석

언제, 어디에나 여러분 곁에 CBS가 있습니다 SMART **[CBIS]**



CBS를 App으로 만나세요